시세보다 저렴한데… 썰렁한 민간공원 아파트 청약

봉산·송암·일곡공원 등 특례사업 단지 3곳 사실상 전부 미달
얼어붙은 광주 부동산 상황에 청약홈 개편 나섰지만 효과 없어

최근 청약에 나선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지 내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민간공원 아파트 단지가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원 아파트 단지는 시세에 비해 평당(3.3㎡) 300~400만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배를 마시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 경색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5일 1순위 청약에 나선 '봉산공원 첨단 제일풍경채'는 전체 4개 타입 중 84㎡A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에서 미달을 기록했다. 가장 청약이 많았던 84㎡A 타입 조차 342세대 모집에 769명이 지원하며 2.25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에 그쳤다.

84㎡B 타입의 경우 219세대 모집에 95명에 그쳤고, 84㎡C 타입은 112세대 모집에 36명에 불과했다. 대형평수인 115㎡A 타입 역시 221세대 모집에 136명을 모으는 데 그쳤다.

지난달 26일 청약에 나선 '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VIEW'는 더욱 처참하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이 아파트는 전체 1473세대 모집에 청약 통장 1329개 만이 접수됐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84㎡A 타입이 515세대 모집에 672명을 불러모아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고, 84㎡B, 84㎡C, 108㎡타입은 모집 세대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청약에 나선 '위파크 일곡공원'은 청약통장 개수에서는 그나마 체면치레에 성공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달에 가깝다.

전체 797세대 모집에 2361개 통장이 접수됐는데, 7.43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84㎡A와 1.23대 1을 기록한 84㎡B 외에 84㎡C와 대형평수인 138㎡A·B는 미달을 기록했다.

이들 3개 단지는 주택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 1월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가격인 1853만에 견줘 15%가량 저렴한 분양가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송암공원은 평당 1680만원, 일곡공원은 1657만원, 봉산공원은 1623만원으로 최근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게 사실이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타개하는 힘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청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가 오는 22일까지 개편작업으로 청약이 불가한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일정을 미루는 것보다 앞당기는 것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원 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며 "청약홈 개편 문제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청약을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지 10곳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곳은 수랑공원과 중앙공원 1지구 두 곳이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중앙공원1지구의 경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가지고 청약에 나선 평당 2000만원의 중외공원은 미달에 그쳤고, 전 세대 분양에 실패한 비슷한 가격대의 중앙공원 2지구도 잔여 물량 판매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현지화 전략 '가속화'

베트남 인피나와 투자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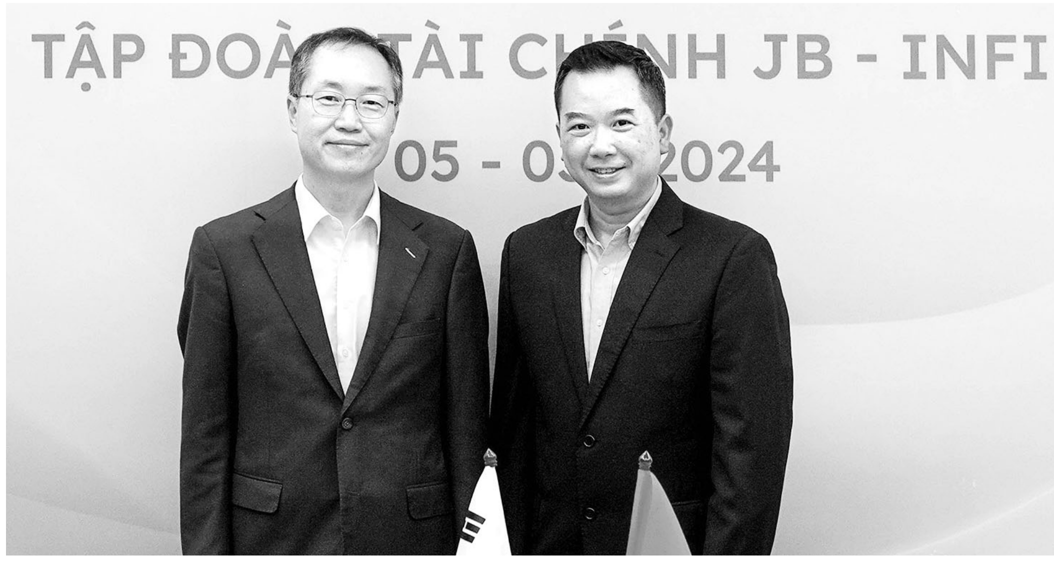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베트남 자회사 'JB Securities Vietnam(JBSV)'가 베트남 현지 금융 플랫폼인 'Infina(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투자계약으로 JB금융그룹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인피나의 지분 약 3.9%를 J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기로 했다. 또 향후 인피나와 JBSV의 협업 성과에 따라 지분을 약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계약은 금융 플랫폼사와 전략적 협업 강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의 첫 발걸음으로 베트남 하노이 소재의 증권사를 인수해 첫 해외 자회사인 JBSV를 출범시키고, 사업영역 다각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JBSV는 베트남 현지 기업의 회사채 발행주관 등 투자금융(IB) 현지화 사업을 기반으로, 증권사 인수 이듬해인 지난 2021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9월 대고객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인 FINAVI(financial Navigator)를 출시해 3개월 만에 약 3만개의 증권계좌를 모집하기도 했다.

JBSV는 이번 투자계약을 통해 해외 고객 기반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 및 파트너십 체결을 발판 삼아 해외 핀테크 플랫폼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해외 시장 내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초거대 생성 AI가 만드는 초격차 시대'에 관하여

한은 광주전남본부, 25일 금융경제강좌…유튜브 실시간 송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사옥 1층 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 1회차 강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첫 강좌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AI) 대학원 김종원 교수가 첫 강좌는 '초거대 생성 AI가 만드는 초격차 시대' 주제로 진행한다.

김종원 교수는 GIST AI 대학원 원장 및 슈퍼컴퓨팅 센터 센터장을 겸임하는 AI 분야 전문가다.

1회차 강의는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theBankofKoreakr)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광전본부는 금융경제 강의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5회였던 '한국은행 금융경제강좌' 횟수를 올해부터 8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3~6월)와 하반기(9~12월) 각각 4회씩 강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사진은 지역경제 및 금융경제 등 주요 경제 이슈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개미들, 매수보다 매도

광주·전남, 지난달 거래대금 1.9% 감소…증시 회복에 차익 실현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 투자자들은 코스피 종목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것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증시가 오랐고, 특히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4년 2월 광주·전남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의 주식 거래대금은 8조2501억원으로 전월(8조4092억원)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1조9001억원으로 전월(1조8906억원)에 견줘 95억원(0.5%) 증가했고, 매도거래대금은 전월(1조8240억원)보다 15.35% 오른 2조1039억원 거래됐다.

매수 대비 매도거래대금 증가폭이 높았던 건 정부의 상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의 증시 회복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은 지난달 코스피에서 자동차주인 현대차와 기아를 가장 많이 사고 팔았다.

현대차 매수거래대금은 1063억9341만원, 매도거래대금은 1547억280만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고, 지난 1월 주가가 급등한 기아는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역민들은 1299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코스닥 매수·매도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했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2조1530억원으로 전월(2조3558억원)보다 2028억원(8.6%)감소했고, 매도거래대금은 2조929억원을 기록해 전월(2조3386억원) 대비 2457억원(10.5%) 줄었다.

코스닥에서는 지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초전도체, 이차전지주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비트코인, 급락후 6만6000달러선 회복

"급등 후 조정 자연스로운 현상"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6일(현지시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11시45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7% 오른 6만6661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6만9300달러대(코인메트릭스 기준 6만9210달러)보다는 4%가량 낮은 수준이지만, 전날 저점보다는 크게 오른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전날 사상 처음 6만9000달러선에 오르며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신고점 달성의 환호도 잠시, 기다렸다는 듯 매도세가 이어지며 5시간 만에 6만달러선 아래까지 추락했다.

고점 대비 약 14% 폭락했던 것이다.

가상화폐 데이터 추적업체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 8억 달러가 넘는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돼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6만 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6만6000달러선까지 올라왔다.

/연합뉴스